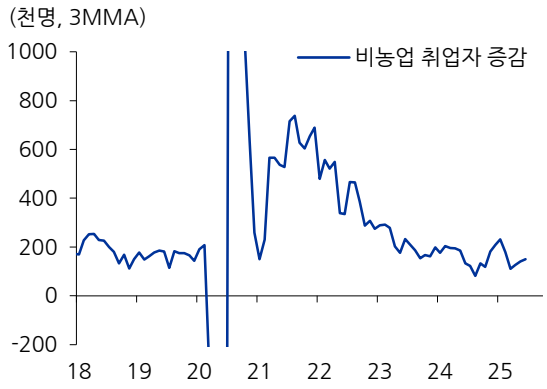
# Global Economy

## 미국 고용 - 흔들리는 편안함

Economist 이정훈, CFA 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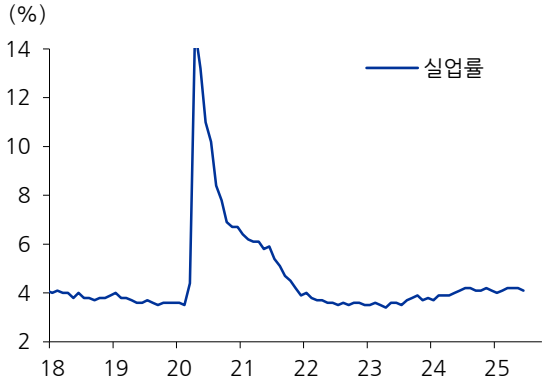
- 6월 비농업 취업자 +14.7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상회. 실업률은 4.1%로 하락
- 이번에도 헤드라인 데이터는 견고했으나, 정부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민간은 위축되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크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
- 실업률 하락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작용했을 수 있음
-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함.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들이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음. 연준은 아주 편안하게 지켜볼 수는 없어도 당장 크게 불안해할 이유도 없음. 금리 인하는 최소 9월 이후로 지연

### 미국 3 개월 평균 취업자 +15.0 만 명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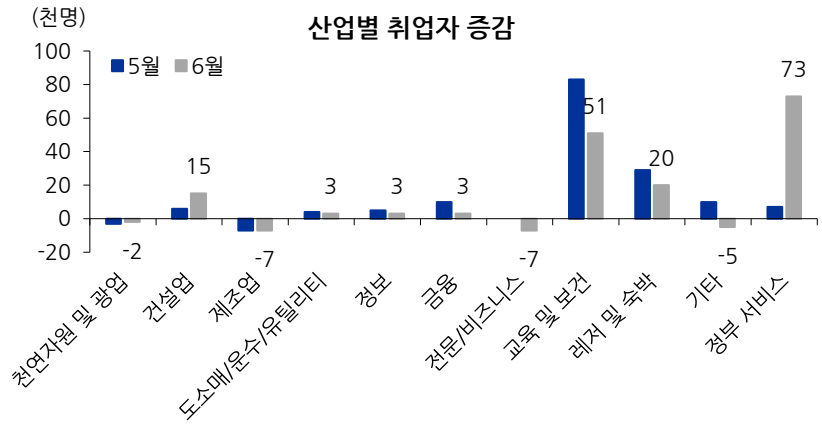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# 실업률은 4.1%로 하락
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# 민간 부문 고용은 약화, 정부 부문은 큰 폭 반등
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 흔들리는 편안함

**미국 6월 비농업 취업자는 +14.7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3만 명 가량 상회했다. 직전 2개월 고용은 +1.6만 명 상향되었다. 실업률은 4.1%로 하락했다.**

**6 월 고용은 정부 부문과 민간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**. 트럼프 취임 이후 크게 약화되었던 정부 일자리가 6 월에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. 이는 대부분 교육 부문의 일자리 증가에 기인하는데, 데이터의 흐름을 볼 때 그간의 인력 축소가 되돌려졌다기 보다는 계절성 이슈로 일시적으로 크게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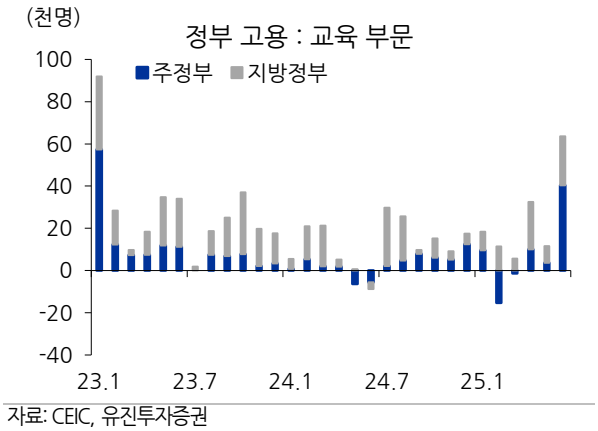
반면 **민간 일자리는 +7.4 만 건 증가에 그쳤다.** 이는 허리케인 영향이 컸던 지난해 10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. 헬스케어 일자리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, 트럼프 취임 이후 제조업/도소매운수 업종에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.

**결국 이번 고용도 지난번처럼 헤드라인 데이터는 견고하나,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**. 실업률 하락도 경제활동참가율이 2 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도 있다.

고용 지표는 분명 약해지고 있다. 하지만 기업들이 아직 해고에 적극적이지 않다. 연준은 아주 편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당장 크게 불안할 이유도 없다. 다만 대량해고가 없더라도 미국 경기 여건 상 고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. **지난 FOMC 가 꽤나 매파적이었지만, 9 월 회의 이전까지는 아직 두 번의 데이터가 더 남아있어 9 월 인하를 당장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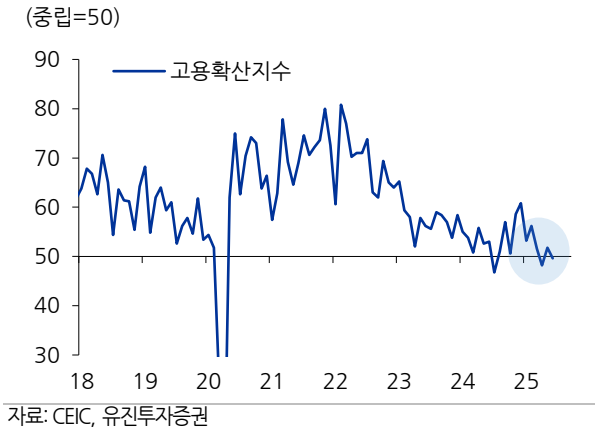
최근 고용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이민자 문제인데,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유입이 급감했던 것을 감안하면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말처럼 향후 고용 증가세 보다는 실업률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.

도표 1. **갑자기 급증한 정부 교육 부문 일자리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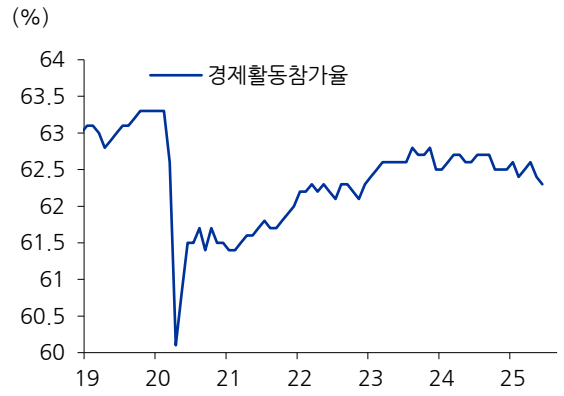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2. **민간의 모멘텀은 썩 좋지 않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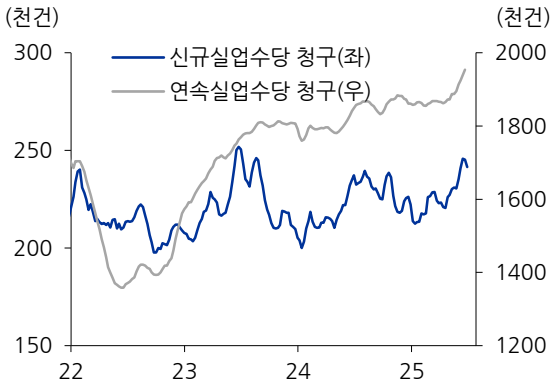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3. **경활률은 2022 년 말 이후 최저치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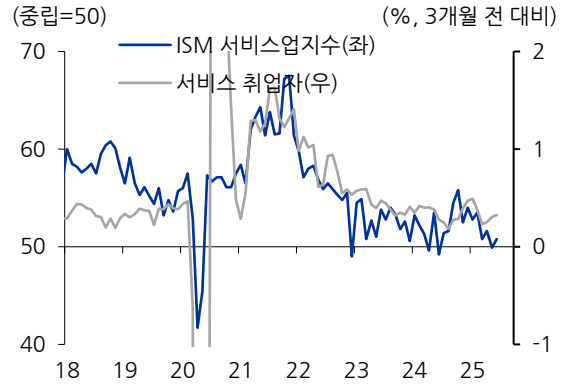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4. **해고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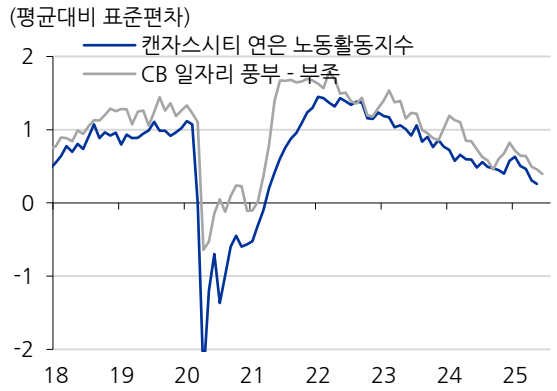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5. **서비스업 경기도 그다지 좋지 않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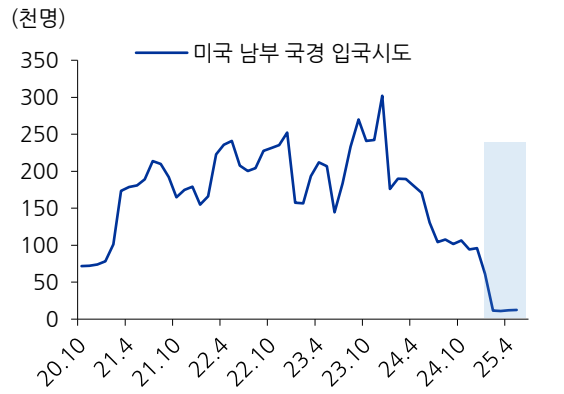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6. **방향성은 계속 아래로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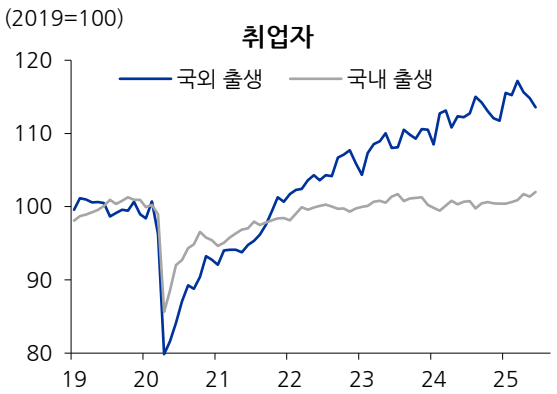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도표 7. **올해 들어 이민자 유입 급감**




자료: US CBP, 유진투자증권

도표 8. **그간 국외 출생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**
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